

제목: <멜로무비>, 끌어낼수록 깊어지는 이나은 작가의 스토리

<멜로무비>는 2025년에 개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이다. 이 작품은 이나은 작가의 2번째 드라마 작품으로, 오충환 감독이 감독한 청춘 힐링 로맨스 드라마 이다.

무명 배우 고겸은 영화계에서 활동 중, 김무비라는 서브작가를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된다. 김무비 역시 고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사랑을 싹틔우려할 찰나, 고겸의 형 고준이 사고를 당하게 되어 고겸은 자취를 감춘다. 시간이 지난 뒤, 영화 평론가로 이름을 알리는 고겸과 영화감독이 된 김무비는 재회하게 되고, 고겸은 옛날의 감정을 이어나가려 하는 반면, 김무비는 예전에 겪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을 애써 외면한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오랜 고민 끝에 서로 사랑하며 만나기로 한다. 서로 사랑하던 중, 고준이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자, 고겸은 방황을 하게 되고, 그런 고겸을 김무비는 옆에서 자리를 지키며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고겸을 치유한다.

이나은 작가는 인터뷰(뉴스 토마토 산상민 기자)에서 자신의 작품이 과거의 고민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며, 캐릭터들에게 현실적인 결핍과 서사를 부여하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멜로무비>는 드라마 이름과는 달리 남주인공 고겸과 여주인공 김무비 간의 멜로는 비중이 크지 않다. 설레는 로맨스를 기대하고 작품을 본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고겸과 고준의 형제간의 우애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다. 이는 이나은 작가의 제작 스타일이 인물과의 대화, 독백을 기반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작중인물의 내면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시청자의 몰입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스타일로 인하여 작품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작가의 전작인 <그 해 우리는>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인터뷰 방식과 독백 등을 사용하여 작중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과거의 미성숙했던 사람들이 미래에 다시 만나 과거를 위로하고, 용서하며 성숙한 사랑을 하는 전개 방식이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해 우리는>이 어리고, 순수한 사랑을 위주로 전개해 나가는 반면, <멜로무비>는 상처와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므로 전체적으로 비슷해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두 작품이다.

<멜로무비>에서 '영화'는 단순히 이야기의 소재가 아닌, 등장인물들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의 역할로 등장한다. 고겸과 김무비는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서로를 알게 되고, 영화를 통하여 가까워지는 등, 서로의 연결점으로 작용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 비평가가 되는 고겸과 영화감독이 되는 김무비를 통하여 영화가 둘에게 또 다시 깊은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고겸과 고준 사이 또한 영화로 이어진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영화를 접한 고겸에게 영화는 인생의 일부분으로 자리잡히지만,

고준을 사고로 잃고싶지 않은 마음을 영화를 함께 본다는 행동으로 표현한다.

연출 측면에서 <멜로무비>는 감정을 극대화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카메라는 인물의 표정을 클로즈업 하여 강조하고, 조명 등을 이용하여 심리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고검의 아픔을 나타낼 때는 차가운 조명을, 김무비의 치유 과정을 나타낼 때는 따뜻한 색조를 사용하여 심리적 변화를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출 방식이 지나치게 잔잔한 흐름을 유지하는 데 그쳐, 극적인 변화를 나타내는데엔 부족하다.

요약하자면 <멜로무비>는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며 공감을 유도한 작품이어서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아픔과 치유, 그리고 사랑 이라는 주제로 이를 작품속에 잘 녹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고 생각한다.